

불자 세상보기



정상문 명지대 중동연구소 연구교수

작년 12월 17일 튀니지 대졸 청년 실업자 모하메드 부야지지의 분신자살 시도로 촉발된 민주화 시위는 올해 1월 14일 23년 장기독재자 벤 알 리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하면서 끝이 나는 듯 보였다. 그러나 1월 17일자 <뉴욕 타임즈>는 이집트, 알제리, 모리타니아 등에서도 부야지지의 영향을 받아 분신을 시도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보도했고, 이후 민주화 시위는 예멘, 요르단, 이란, 쿠웨이트 등으로 사막의 모래폭풍처럼 확산됐다. 그 중에서도 이집트 민중의 민주화 혁명은 1980년 광주 시민혁명이나 1987년 한국의 민주화 혁명을 떠올리게 했다.

이집트 민주화 혁명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세력이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 MB)이다. MB는 나세르, 사다트, 무바라크로 이어져온 60년 군사독재

이집트 민주화 혁명과 이슬람원리주의

정권에서 가장 탄압을 받은 세력이고, 특히 정치이슬람 또는 이슬람원리주의의 세력이기 때문이다.

이집트 현대 이슬람원리주의는 1928년 알 반나가 창설한 MB에서 시작했다. 이집트 민주화 혁명 과정에서 MB가 가장 주목을 받는 이유는 MB이념 때문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슬람은 종교이자 국가이고 예배이자 지하드이며, 복종이자 통치이고 책이자 칼이다. 즉 이슬람의 포괄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이슬람은 초기(원래)의 가르침, 즉 코란과 순나로부터 이슬람 규율을 채택하고, 예언자의 교유들이나 제자들의 방식으로 이슬람을 이해해야 한다. 셋째, 이슬람 세계의 보편성, 즉 범 이슬람주의를 강조한다. 즉 이슬람의 단일성을 강조한다. 넷째, 무슬림형제단은 칼리파제를 이슬람 단합과 통합의 상징으로 믿으며, 이슬람정부, 즉 이슬람국가 수립을 기본 목표로 한다. 이 강령의 최종 목표는 이슬람국가, 이슬람사회, 이슬람세계 건설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강령에도 불구하고 MB는 수차례 온건한 방법으로 이슬람세계를 건설하

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예를 들면, 2003년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확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구상'을 통해 중동 국가들의 개혁을 촉구했을 때, 2004년 3월 13일 무바라크 정부의 개혁을 강조하면서 '무슬림형제단의 개혁안'으로 반응했다. 그 주요 내용은 '이슬람 원칙 내에서의 민주적 입헌 공화국' 건설을 주장함과 동시에 보통선거, 대통령 임기 제한, 여성의 의회 진출, 정치생활로부터의 군 철수와 긴급조치법 폐지, 정치 구급 해제, 고문 종식 등을 강조했다. 이슬람원리와 현대 민주주의 원리를 조화 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60년간의 군부정권에서 가장 큰 견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방법, 의회나 정치권에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건실용주의를 수용한 것이다.

이집트 민주화 혁명이 어떠한 방향으로 귀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로 예측할 수 있다. 무바라크, 친무바라크 군부, 현 국민민주당(NDP) 등 기독교 세력의 재기 가능성, 엘 바라데이, 무슬림형제단, 야권 및 재야 세력들의 연합세력(NCC)의 집권 가능성, 무슬림형제단 등 이슬람원리주의 세력의 집권 가능성이 그것이다. 대

부분의 중동전문가들은 무슬림형제단 등 이슬람원리주의 세력의 단독 집권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60년 군사정권 기간 동안 무슬림형제단은 지속적인 탄압으로 인해 분열돼 있어서 단일 대안을 형성하기 힘들 뿐 아니라 미국, 이스라엘과 세속화됐거나 왕정인 주변 아랍국가들이 이슬람원리주의 세력의 집권을 하나의 위기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 혁명은 과도기간이 존재했다. 한국의 민주화가 많은 희생과 시간을 필요로 했듯이 이집트 민주화도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간적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는 하나의 커다란 인류사적 추세이다. 이집트 민주화 과정에서 이슬람원리주의 세력인 무슬림형제단도 이러한 추세를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민주적 가치를 수용하는 수준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차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슬람 사회에서 민주화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라는 문화적·문명적 편견은 버려야 할 것이다.

社說

불교환경연대도 자성과 쇄신을

불교환경연대는 대중적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삼보일배와 천성산 살리기 단식 등을 주도하던 불교계를 대표하는 NGO단체 중 하나이다. 이 단체가 지금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

이 같은 위기는 지난해 6월 삼일대표 수경 스님의 급작스런 작적에서 비롯됐다. 수경 스님이 작적하자 도미노처럼 실무진들이 불교환경연대를 떠났다. 선장이 떠난 배에 선원이라고 남아 있을 리 없던 것일까. 4개월 여 표류 끝에 신입 삼일대표로 현 고 스님을 선출했지만 이마저도 잠시. 현 고 스님마저 1월 17일 사퇴했다. 이에 앞선 13일에는 불교환경연대를 혼자 지키다시피 했던 명계환 조직국장이 떠났다. 작적, 사퇴·사퇴·사퇴... 사임이 줄 잇는 동안 불교환경연대는 신규사업을 벌였다. 숲 명상 유아학교가 그것. 하지만 인재가 빠져나가기 시작한 조직의 사업이

재대로 될 리 없었다. 신규사업 진입 실패는 불교환경연대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수경 스님이 떠난 불교환경연대는 더 이상 불교환경연대가 아니었다. 현 고 스님은 '슈퍼스타의 빈자리'라고 표현했다. 수경 스님이 불교환경연대의 조직관리는 물론 재경까지 도맡았다고 하니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민주주의에 어긋난 독단적인 시스템을 감시·질타해오던 불교환경연대가 1인 체제의 뒷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들면서 유후으로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을 남겼다. 다른 것에 귀의하거나 의지 말고 오로지 자신과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이다. 불교환경연대에 필요한 것은 수경 스님을 대신할 새 지도자가 아니라 구성원 각자의 자성과 쇄신이다.

의혹 규명보다 태도부터 분명히

4대강사업이 진행 중인 낙단보에서 발견된 마애불을 두고 조계종이 정부와 전쟁을 선포했다. 조계종은 2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애불에 드릴로 뚫린 천공이 4대강 사업 강행으로 빚어진 의도적 훼손이라는 조계종을 맞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낙동강 낙단보 마애불이 발견된 지 4개월 여만의 일이다. 100일도 지나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정부 측 대응이 불교계 우물에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문화재청은 조계종 관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려며 사실 은폐를 시도했다.

주지해야 할 사실은 조계종의 바뀐 태도이다. 조계종은 지난해 마애불 발견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의 날

선 질문에 "마애불이 고의적 훼손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측을 대변했다.

조계종은 정부·여당 인사와 소통을 단절하는 등 민족문화유산보호법을 빙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마애불 논란의 재경화가 민족문화유산보호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민족문화유산보호법이 전국적·범종단적 지지는커녕 총무원 인근에서 근근히 이어지는 가운데, 불자들이 가장 분노를 하는 쉼보로 이슈화해 민족문화유산보호법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런 의혹이 계속되면 민족문화유산보호법은 더더욱 구심점을 잃고 만다. 조계종은 민족문화유산보호법을 원점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

사부대중 칼럼



현각 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필자가 답답아 온 동국대학교 교가는 '거룩한 삼보의 언덕위에...'로 시작된다. 이 삼보의 언덕에서 강의를 시작하지 어언한 세대가 되었다. 흔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들 말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세 번쯤은 강산이 변했음직한 긴긴 시간의 흐름이다.

사람도 변하고 교정도 변했고 수종도 변했으며 나무의 굵기도 여간 변한게 아니다.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제일 먼저 접하는 말이 무상이라는 말이다. 어느 동자승은 '왜 절에 왔어요'라고 물으니 '무상해서요'라고 대답했다니 질문자의 간담을 써늘하게 할 말이다. 동자가 그 엄청난 무상을 터득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상의 이치를 수로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마주치고 지나치기 일쑤다. 계절의 변화가 그렇고, 별들의 공전과 자전이 그러하며 계절의 순환적

거룩한 삼보의 언덕

자신도 흡족하고 고백(?)도 만족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동양적 의미의 강의는 예절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로움이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다. 학생이라면 누구나 정의로움에 찬사를 보낸다. 또한 정의의 수호신이라고 자처하기도 한다. 의롭게 살라 배웠으니 그도 그럴만 하다. 학문 분야가 어떠한 공히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는다. 인간을 재는 척도는 문과나 이과나로 구분되지 않고 의로움에 맞춰지기 마련이다.

강의실에서 의로운 마음은 어디로 가고 교정만 벗어나면 망각이란 이름 모를 강에 풍덩 던져버리고 만다. 권력 앞에 굴종하고 금력 앞에 고귀한 양심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만다. 마침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사거리는 몽땅 배운 자의 소행일 뿐이다.

작은 것에 현혹되어 큰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 소탐대실이라 했던가. 옛 스승들은 내 고귀한 생명을 버려서라도 의로움을 택하겠다고 하였다. 현대인의 초상을 본다. 왜 이리 어설플까. 왜 이리 초라한가. 의로움 시대에 따라 카멜레온이 되고 마는 것일까. 주위의 환경이나 광선 또는 사유의 축출물을 열정을 다하여 강의한다면

응하는 카멜레온은 말이다.

의로움은 탐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고선(至高善)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휘청거리러는 듯 해도 유지되고 발전하는 원동력이 있다. 인간의 심저에 있는 양심의 고동소리를 경청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작은 것이나 적은 것은 불품도 없고 나약한 듯 하지만 순수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다.

불보와 법보와 승보를 삼보라 일컫는다. 거룩한 삼보의 언덕에서 그 소명을 다 했을까. 반추해 보는 시간이 되고 말았다. 불보는 생존 인물인 싯다르타 태자를 말한다. 도를 이룬 모든 이를 말하기도 한다. 법보는 부처님 가르침인 팔만대장경을 이른다. 승보는 출가 수행자를 말한다.

필자는 부처님 교설을 가르치는 스승의 길을 걷고자 발원하고 교단에 섰다. 세사(細沙)마냥 무궁한 법의 바다에서 노닐다 보니 슬한 세월이 흘렀다. 가히 시냇고난한 세월이었다. 육신의 병이라고보다 정신세계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데서 온 결과라 생각한다. 앞으로 주어진 시간 모두 연소시키고자 한다. 삼보의 언덕이 찬란히 빛나게.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海月 金文華의 魂이 담긴 스피커의, 힘 있고 우렁찬 소리는 스님의 건강과 절 전체에 氣를 불어넣어 줍니다.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tal Echo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일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고성능 탁상마이크
•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DX-707 스탠드 마이크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 전용 스피커
•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경명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입니다.

- 책자 안내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4.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천축, 연축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7. 특별한천도에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르라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폍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